

경제주평

- 최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특징과 시사점
 - 국별/성질별/품목별 수출 다변화 시급

목 차

■ 최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특징과 시사점 - 국별/성질별/품목별 수출 다변화 시급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대아세안 수출의 특징	3
3. 시사점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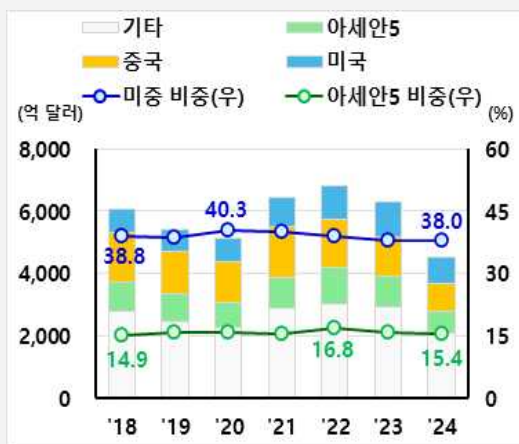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특징과 시사점

- 국별/성질별/품목별 수출 다변화 시급

■ 개요

국내 수출은 미·중 양국에 대한 고의존도 장기화와 동시에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아세안-5와 같은 새로운 수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호조와 불황을 반복해 왔으나,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40.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당히 고착화된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 한편, 최근 미·중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아세안-5 수출의 비중과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수출 주력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8월 누계 기준) 대아세안-5 수출 비중은 약 15.4%로 중국(19.1%) 및 미국(18.8%)과 유사한 수준이며, 한국 수출 증가율 9.9% 중 약 1.3%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세안-5 시장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세안-5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수입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5의 총수입(대세계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전략 시장으로서의 활용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의 특징을 부문별로 살펴본 후 수출 시장 저변 확대와 함께 수출 경기 변동성 완화는 물론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 이용 등 전략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수출액 및 미·중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 수출 증가율의 국가별 기여도 >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 %, %p)			
		아세 안-5	미국	중국	기타
'18	5.4	0.7	0.7	3.5	0.6
'19	-10.4	-0.7	0.1	-4.3	-5.4
'20	-5.5	-0.9	0.1	-0.7	-4.0
'21	25.7	3.6	4.3	5.9	12.0
'22	6.1	2.5	2.2	-1.1	2.6
'23	-7.5	-2.2	0.9	-4.5	-1.7
'24	9.9	1.3	2.8	1.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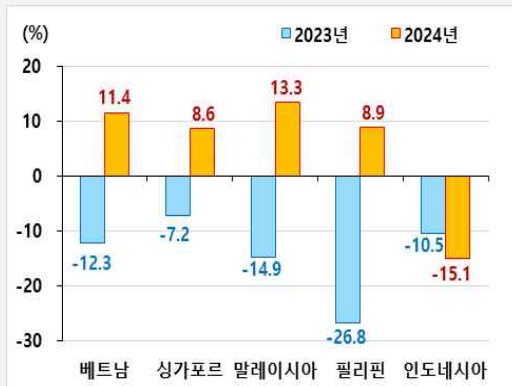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 대아세안 수출의 특징

① 국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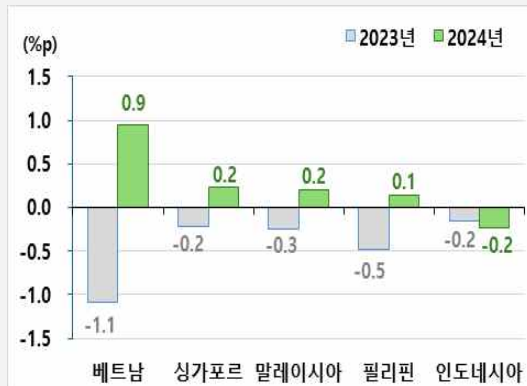
대아세안-5 수출을 국가별로 검토한 결과 대베트남 수출액 규모가 가장 크며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5%로 다른 아세안-5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 대아세안-5 수출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아세안-5 국가 중 베트남으로 2023년 535억 달러, 2024년 8월 누계 기준 38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5 국가로의 수출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수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세안-5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4개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 전환되었으며, 한국 총수출 증가 중 대베트남 수출의 기여도는 0.95%p로 아세안-5 가운데 가장 높았다(2024년 8월 누계 기준). 2024년 8월 누계 기준 대아세안-5 수출은 인도네시아(-15.1%)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국의 총수출 증가(9.9%)에 대한 아세안-5의 기여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0.95%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0.24%p, 말레이시아 0.20%p, 필리핀 0.13%p 순으로 나타났다.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증감률 >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기여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주2. 인도네시아 2023년 -0.16, 2024년 -0.23.

② 성질별 특징

대아세안-5 수출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자본재(58.6%), 원자재(36.1%), 소비재(5.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아세안-5 수출 중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출은 각각 405.6억 달러, 250.3억 달러, 36.5억 달러(2024년 8월 누계 기준)로 자본재 수출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재 수출 중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직접소비재 수출이 각각 13.3억 달러, 13.2억 달러, 9.8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출 중에서는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본재 수출의 경우, IT부품 및 IT 제품 수출이 각각 197.9억 달러, 10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IT부품 수출 중 대부분은 반도체(169.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품목별 특징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 중 50% 이상이 상위 5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누계 기준 대아세안-5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169억 달러)와 석유제품(112억 달러)을 비롯한 중화학 제품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74억 달러), 합성수지(24억 달러), 선박해양구조 및 부품(22억 달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아세안-5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9%로 나타났는데, 특히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약 24.4%, 석유제품 16.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7%로 분석되어 상위 3개 품목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 대아세안-5 수출 상위 5개 품목 현황 >

(억 달러, %, %p)

	규모			대아세안-5 수출액 대비 비중		
	2023	2024	증가율	2023	2024	증감
반도체	133	169	26.8	20.8	24.4	3.6
석유제품	97	112	14.9	15.2	16.2	0.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5	74	△1.3	11.8	10.7	△1.0
합성수지	20	24	23.3	3.1	3.5	0.4
선박해양구조 및 부품	20	22	9.9	3.1	3.1	0.0
합계	345	401	16.1	54.0	57.9	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1. 8월 누계 기준

주2.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을 사용.

한편, 대아세안-5 품목별 수출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위 3개 품목만이 수출을 주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5 국가 중 대인도네시아 수출(38.0%)을 제외한 모든 수출 대상국에서 상위 5개 품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필리핀 66.2%, 대말레이시아 55.0%, 대베트남 62.4%, 대싱가

포르 8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대싱가포르, 대필리핀 수출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상위 2개 품목만으로도 비중이 50.0%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은 일부 품목 편중도가 높고, 특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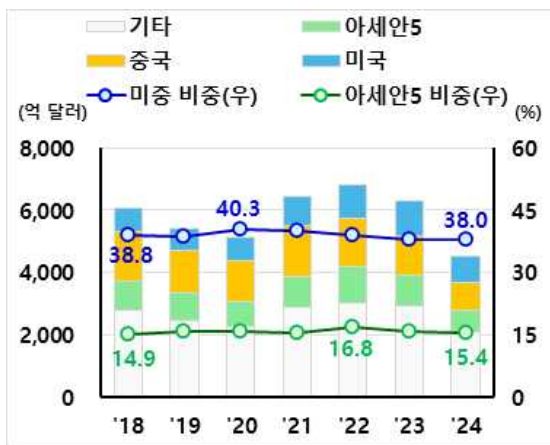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더불어 대외 환경 악화에 의한 외수(수출) 경기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출의 경기 버팀목 역할을 견조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 기대가 큰 아세안-5 시장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성장성도 큰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해 이런 맹점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아세안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 등을 한 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부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아세안 자체의 성장 활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세안 시장은 향후 풍부한 인구나 높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현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의 자본재 수출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소비재 수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특정 국가와 일부 상위 품목에 편중된 대아세안-5 수출 구조에서 탈피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수출 변동성 축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변화·다각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1. 개요

- 최근 국내 수출은 미·중 양국에 대한 高의존도 장기화와 동시에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 아세안-5)와 같은 새로운 수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한국 수출은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호조와 불황을 반복해 왔으나, 구조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착화된 흐름이 지속
 - 수출 경기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40.0% 내외의 압도적 수준을 지속하는 등 편중된 수출 구조가 장기화
 - 최근 미·중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경기의 안전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출 대상국으로의 진출이 중요한 상황
- 한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아세안-5 수출 비중과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로운 수출 주력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24년 8월까지 누계 기준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대아세안-5가 15.4%로 미국(18.8%) 및 중국(19.1%)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특히, 2024년 8월까지 한국의 총수출이 약 9.9% 증가하는 데 아세안-5의 기여도가 1.3%p로 중국(1.4%p)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액 및 미·중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 수출 증가율의 국가별 기여도 >

연도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 %, %p)			
		아세안-5	미국	중국	기타
'18	5.4	0.7	0.7	3.5	0.6
'19	-10.4	-0.7	0.1	-4.3	-5.4
'20	-5.5	-0.9	0.1	-0.7	-4.0
'21	25.7	3.6	4.3	5.9	12.0
'22	6.1	2.5	2.2	-1.1	2.6
'23	-7.5	-2.2	0.9	-4.5	-1.7
'24	9.9	1.3	2.8	1.4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1) 본 고의 아세안-5는 2024년 8월 현재 한국의 수출 대상 아세안 국가 중 상위 5개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정의함.

○ 아세안-5의 경우 향후 수입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나,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아세안-5의 대세계 수입은 2024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 가능성 등에 따라 수입 수요의 확대가 전망됨

- 아세안-5의 대세계 수입은 2023년 대부분 국가에서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감소세(△9.1%)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6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인 상황
- IMF에 따르면 아세안-5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성장 반등세를 이어가고 수입 증가율도 4.1%~1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아세안-5의 높은 수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수입 비중은 8% 내외의 미미한 수준을 지속 중인 상황

- 아세안-5의 대세계 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3년 평균 8.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도 수입 수요 반등에도 불구하고 8.2%(6월까지 누계 기준)의 미미한 수준을 기록
- ※ 아세안-5 대한국 수입 비중(%) : ('18) 8.2 → ('20) 8.7 → ('22) 8.7 → ('24) 8.2

○ 본 고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 특징을 살펴본 후 수출 시장 저변 확대와 함께 수출 경기 변동성 완화는 물론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 이용 등 전략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함

< 아세안-5의 대세계 수입 추이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6월 누계 기준.

< 아세안-5 성장률 · 수입증가율 전망 >

	(전년대비, %)			
	경제성장률		수입증가율	
	'24	'25	'24	'25
베트남	5.8	6.5	8.8	7.6
싱가포르	2.1	2.3	11.8	5.0
인도네시아	5.0	5.1	16.2	12.8
말레이시아	4.4	4.4	4.2	4.1
필리핀	6.2	6.2	5.2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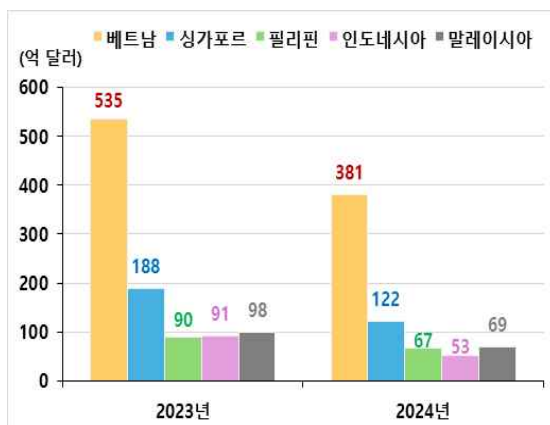
자료 : IMF WEO(April).

2. 대아세안 수출의 특징

① 국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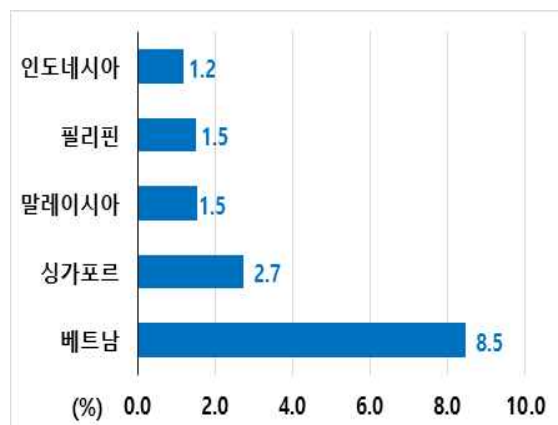
- 대아세안-5 수출을 국가별로 검토한 결과 대베트남 수출액 규모가 가장 크며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5%로 다른 아세안-5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 대아세안-5 수출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음
- 대아세안-5 국가 중 베트남으로 2023년 535억 달러, 2024년 8월 누계 기준 38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함
 -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에서 베트남은 53.4%를 차지(2024년 8월 누계 기준)
 - 베트남은 한국 전체 수출의 8.5%의 비중(2024년 8월 누계 기준)을 차지하며 2024년에도 한국의 세 번째 무역 교역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5 국가로의 수출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수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로의 수출액은 122억 달러(2024년 8월 누계 기준)로 대아세안-5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수출액 기준 베트남의 32.0% 수준
 - 2024년 8월 누계 기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은 각각 67억 달러, 53억 달러, 69억 달러이며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모두 1.5%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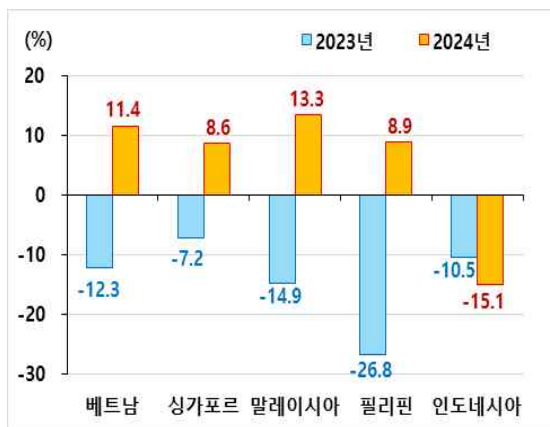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 8월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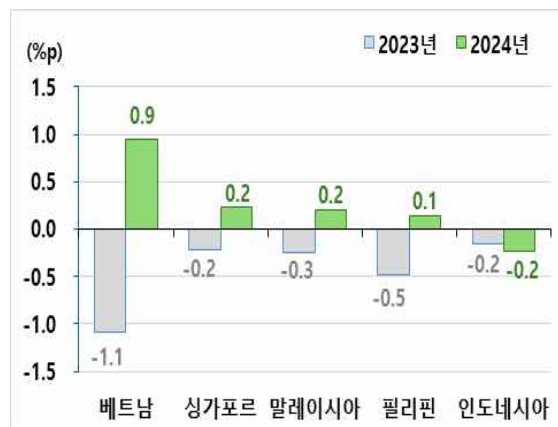
- 또한, 아세안-5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4개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 전환되었으며, 한국 총수출 증가 중 대베트남 수출의 기여도는 0.95%p로 아세안-5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2024년 8월 누계 기준)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증감률이 2023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월 누계 기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재전환
 - 특히, 대아세안-5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베트남 수출이 11.4%의 증가세를 나타냄
 - 한편,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23년 10.5%, 2024년 8월 누계 기준 15.1% 감소하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임
- 한편, 한국의 총수출 증가(9.9%)에 대한 아세안-5의 기여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0.95%p), 싱가포르(0.24%p), 말레이시아(0.20%p), 필리핀(0.13%p) 순으로 나타남(2024년 8월 누계 기준)
 - 대베트남의 수출 기여도가 2024년 8월 누계 기준 다른 아세안-5 국가들에 비해 대략 4~7배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8월 누계 기준 대인도네시아의 수출 기여도는 $\Delta 0.23\%p$ 로서 한국의 수출 증가에 있어 오히려 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증감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 대아세안-5 국가별 수출 기여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4년은 8월 누계 기준.
2. 인도네시아 2023년 -0.16, 2024년 -0.23.

② 성질별 특징

○ 대아세안-5 수출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자본재(58.6%), 원자재(36.1%), 소비재(5.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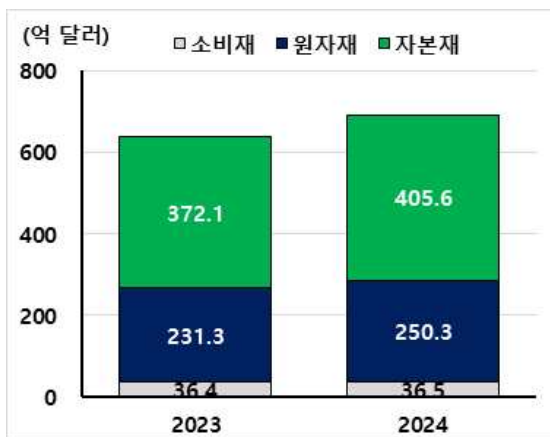
- 대아세안-5 수출 중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출은 각각 405.6억 달러, 250.3억 달러, 36.5억 달러(2024년 8월 누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 대아세안-5 수출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본재 수출은 40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증가
-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수출은 25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비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36.5억 달러로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²⁾

- 세부적으로는 소비재 수출 중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직접소비재 수출이 각각 13.3억 달러, 13.2억 달러, 9.8억 달러(2024년 8월 누계 기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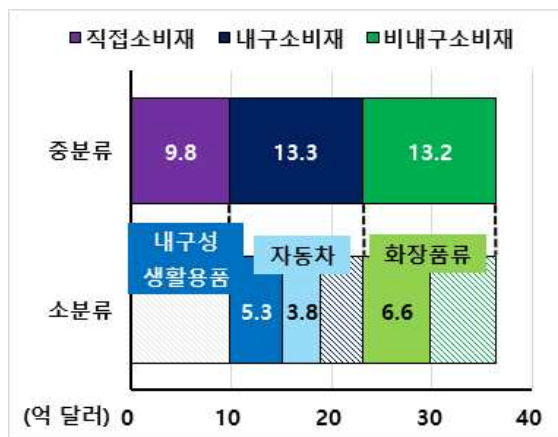
- 대아세안-5 소비재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구소비재 수출은 내구성 생활용품(5.3억 달러), 자동차(3.8억 달러) 등으로 13.3억 달러를 기록
- 비내구소비재 수출도 13.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중 과반수는 화장품류(6.6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대아세안-5 성질별 수출 >



자료 : 관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8월 누계 기준.

< 대아세안-5 소비재 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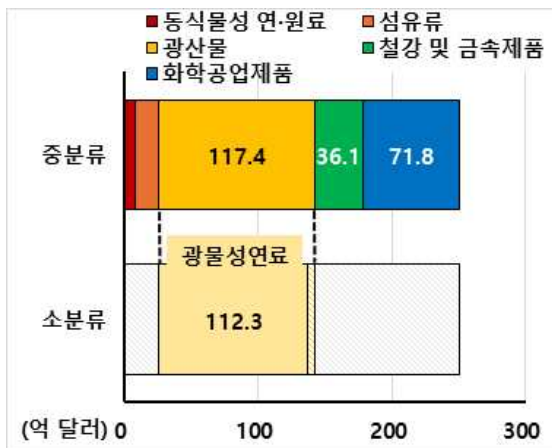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4년 8월 누계 기준
2. 간이세율적용분 제외.

2) 대세계 수출 중 소비재 수출이 14.8%(2024년 8월 누계 기준)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아세안-5 소비재 수출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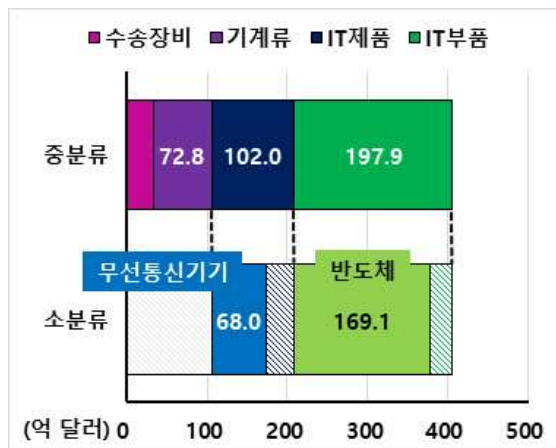
- 원자재 수출 중에서는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이 높은 비중(2024년 8월 누계 기준)을 차지
 - 대아세안-5 원자재 수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산물 수출은 117.4억 달러로 이는 광물성연료(112.3억 달러)에 기인
 -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공업제품과 철강 및 금속제품 수출은 각각 71.8억 달러, 36.1억 달러를 기록
 - 한편, 섬유류 및 동식물성 연·원료 수출은 각각 17.0억 달러, 8.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재 수출의 경우, IT부품 및 IT 제품 수출이 각각 197.9억 달러, 102.0억 달러(2024년 8월 누계 기준)를 기록
 - 대아세안-5 자본재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부품 수출은 197.9억 달러로 그중 대부분은 반도체(169.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생산 공장을 마련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
 - 무선통신기기(68.0억 달러) 등 IT제품 수출은 102.0억 달러를 기록
 - 한편, 기계류 및 수송장비 수출은 각각 72.8억 달러, 32.9억 달러로 자본재 수출 중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비재 및 원자재 수출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

< 대아세안-5 원자재 수출 >



자료 : 관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4년 8월 누계 기준
 2. 기타 원자재 제외.

< 대아세안-5 자본재 수출 >



자료 : 관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 8월 누계 기준.

③ 품목별 특징

-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 중 50% 이상이 상위 5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아세안-5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비롯한 중화학 제품인 것으로 분석
 - 2024년 8월 누계 기준 아세안-5의 국가별 수출 상위 5개 품목을 식별한 후 총액 순으로 상위 5개 품목을 선정
 - 2024년 기준 수출 상위 품목은 반도체(169억 달러), 석유제품(112억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74억 달러), 합성수지(24억 달러), 선박해양구조 및 부품(22억 달러) 순이며, 모두 중화학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 5개 품목의 증가율은 16.1% 기록
 - 또한, 대아세안-5 총수출액에서 상위 5개 품목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57.9%로 나타남
 - 2024년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57.9%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p 상승하여 상위 품목 편중도는 심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24.4%에 달하는 가운데 석유제품(16.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0.7%)의 상위 3개 품목 의존도가 높은 상황

< 대아세안-5 수출 상위 5개 품목 현황 >

(억 달러, %, %p)

	규모			대아세안-5 수출액 대비 비중		
	2023	2024	증가율	2023	2024	증감
반도체	133	169	26.8	20.8	24.4	3.6
석유제품	97	112	14.9	15.2	16.2	0.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5	74	△1.3	11.8	10.7	△1.0
합성수지	20	24	23.3	3.1	3.5	0.4
선박해양구조 및 부품	20	22	9.9	3.1	3.1	0.0
합계	345	401	16.1	54.0	57.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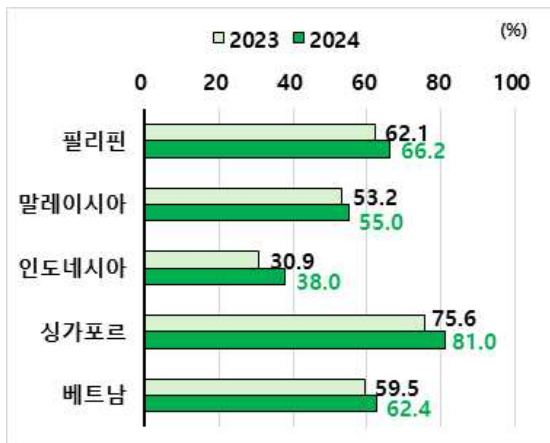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1. 8월 누계 기준

2.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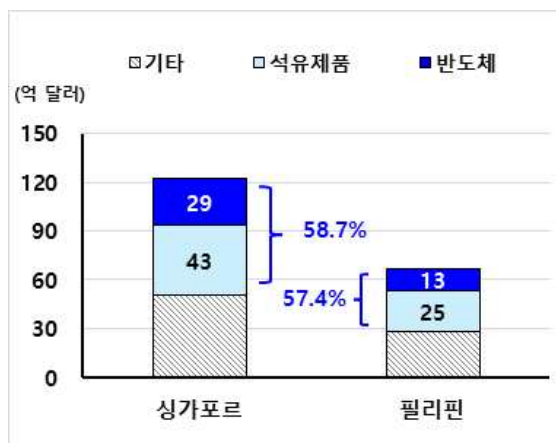
- 한편, 대아세안-5 품목별 수출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위 2개 품목만이 수출을 주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아세안-5 국가 중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제외한 모든 수출 대상국에서 상위 5개 품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상위 5개 품목 비중이 38.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석유제품(11.1%), 합성수지(8.4%), 철강판(7.9%), 반도체(6.2%), 정밀화학원료(4.4%) 등 품목별 비중이 고루 나타남
 - 그러나 대필리핀 66.2%, 대말레이시아 55.0%, 대베트남 62.4%, 대싱가포르 81.0%로 수출 상위 5개 품목 비중은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 특히,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대싱가포르, 대필리핀 수출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위 2개 품목만으로도 비중이 50%를 상회
 - 한국의 대싱가포르 총수출액 122억 달러 중 석유제품은 43억 달러, 반도체는 29억 달러로, 비중은 약 58.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필리핀 수출의 경우에도 총 수출액(67억 달러) 대비 석유제품(25억 달러), 반도체(13억 달러)로 57.4%에 달하는 상황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은 일부 품목 편중도가 높고, 특히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매우 심화한 것으로 판단

< 대아세안-5 국가별 총수출액 대비 상위 5개 품목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8월 누계 기준.

< 2024년 대싱가포르, 대필리핀 수출 상위 2개 품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8월 누계 기준.

3. 시사점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더불어 대외 환경 악화에 의한 외수(수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출의 경기 버팀목 역할을 견조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 기대가 큰 아세안-5 시장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성장성도 큰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해 이런 맹점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의 총 수출액 대비 미·중 수출 비중은 수출 경기 호황 및 불황 여부와 관계없이 약 40.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은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 초강력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향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대중, 대미 수출의 비중을 낮추고 한국 수출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아세안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부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아세안 자체의 성장 활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 비중은 약 15.0% 내외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나,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대세계 수입 수요의 약 8.0% 수준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

-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와 한국-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아세안 수출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대아세안 투자를 바탕으로 수출 및 자본 수익을 확대해 나가며 한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간 부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아세안을 전략 시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셋째, 아세안 시장은 향후 풍부한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현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의 자본재 수출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소비재 수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2024년 8월 누계 기준 대아세안-5 수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8.6%, 원자재 비중은 36.1%로 나타난 반면, 소비재는 5.3%에 불과한 상황
-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구매력이 점차 확대되어 한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는 매력적인 소비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류(韓流)로 인해 형성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향후 소비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고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식품, K-뷰티, K-콘텐츠 등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넷째, 특정 국가와 일부 상위 품목에 편중된 대아세안-5 수출 구조에서 탈피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수출 변동성 축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변화·다각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의 대아세안-5 수출은 국가 기준으로는 베트남, 품목 기준으로는 일부 상위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같은 대아세안-5 수출 구조에서는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특정 산업의 업황에 따라 수출 경기가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이를 다변화·다각화하여 수출의 체력을 강화해야 함 **HRI**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